

대형 화재의 현장을 필름으로 보면서 대연각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자유중국 공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얼마후 화상으로 사망했다는 그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했던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불과 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물은 대자연의 섭리이다.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은 최대한도로 정신만 차리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 교육에 참가한 또 한번의 보람을 느낀다.

언젠가 소비자연맹에서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교실에서 전화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손을 들게 했다. 마지막 질문은 소화기가 있는 어린이를 묻는 것이었는데 그 대목에 가서는 60명중 하나, 둘 밖에는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전화는 100%, 자동차는 아파트단지에서는 80%, 피아노도 거의 50%에 가까운데 그 물건들의 1/100도 안되는 소화기는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다. 그 조사를 한 이후, 그 반의 담임선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 연수통지를 받을 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런데 각종 화재의 원인에 따라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와 그 작동방법을 배우고 직접 불을 꺼 보고는 “참 잘왔다” 싶고 집에 가서 자랑거리가 생긴 것이 신이

방재시험소를 다녀와서

송 소 자
〈한국소비자연맹 주부 모니터〉

났다. 높고 넓은 방에 규격대로 쌓아올린 나무가 훨훨 탈 때는 모두가 멀지감치에 서서 뒷걸음질 치면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소화기를 작동해서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연수생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한번의 불을 끈 것으로 웬지 만사에 자신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교육을 겸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힘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대형건물에 들어가서 천정에 붙어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보고는 저것이 일정한 온도나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물을 뿜는 것이구나 하고 무심히 지나쳤었는데, 몇모금 뺀 담배연기 정도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것은 신기하고도 안심스러웠다. 만일 수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해 놓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대형사고, 대형화재 등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본 대형화재를 주제로 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어쩐지 낭만적으로만 보였던 것은 웬일이었을까. 영화를 영화로만 보아서 그랬다면 대연각이니 대왕코너니 하는 대형화재사고는 영화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만큼 픽션과 논픽션의 차이를 느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금연운동에 스프링클러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웃어본다. 모든 사무실마다 연기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스프링클러를 달아놓으면 그 사무실에서 일정 수준의 연기가 방에 찻을 때 저절로 물이 쏟아지는 시스템, 결국 방안이 물바다가 되니까 누구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그런 사무실의 맑은 공기. 금연운동을 하면서부터 무엇이나 담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다. 얼마전 통계에서 화재발생원인으로 전기가 1위, 담배불이 2위, 어린이 불장난이 3위, 유류가 4위 등이라는 기사를 볼 때도 무언가 자동적으로 담배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그뿐인 것을, 구차한 장치까지 해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언젠스다.

시험소장의 친절한 안내와 방재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등 각종 도서를 모아놓은 자료실에서 나는 다시 한번 정보화시대의 정보수집과 정리, 이에 따른 연구 대비 등 각 분야마다 철저히 다뤄고 있는 연구원들이 대견스럽고 믿음직스럽다. 화장품, 식품, 약품 심지어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수없이 연수를 한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설비라도 한순간에 재로 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진다. 빨리 집에 가서 우리집도 점검해 봐야지.

A급은 목재, 형겔 등,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라며 혼자 ABC를 중얼거린다. (㉹)